

# 최근 30년간 중국 기독교<sup>1)</sup> 연구 현황 일별

조 혜 영\*

<目次>

I. 들어가며	2. 1990년대 ‘신학사상 건설 운동 토론
II. 중화인민공화국 기독교 현황	3. 2000년대 기독교 현지조사
III. 중국 기독교 연구 현황	연구
1. 1980년대 중국기독교사(史) 연구의 시작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중국의 기독교(개신교) 인구에 대한 수치 통계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관련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대략적으로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당시 70만으로 추산<sup>2)</sup>되었던 기독교 인구는 신중국 건립 이래 점점 더 가혹해진 박해와 특히 문화대혁명의 고비를 넘기면서 오히려 1980년대 초 300만으로 증가하였고, 1980년대 말에 다시 400만으로 재차 급증하였다.<sup>3)</sup> 중국기독교 삼자회(三自會)를 대표하는 기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1) 본 논문에서 기독교는 주로 개신교를 지칭한다. 이는 중국의 관련 연구 논문들의 명칭 사용법 상 천주교는 천주교로 개신교는 기독교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존중한 것이다.  
2) 段琦, <当代中国基督教概况及所面临的问题>, 《世界宗教研究》, 2003年 第3期, 63쪽.

독신학잡지 《금릉신학지(金陵神学志)》는 2000년대 초 현재 중국 기독교 인구를 1500만에서 1600만 명 선으로 발표<sup>4)</sup>하고 있으며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 개신교도가 인구의 약 2%를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일부 중국 농촌의 기독교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관련 연구들은 중국 기독교인 수를 1억 명을 선회하는 것으로 언급하기도 한다.<sup>6)</sup> 또한 해외 학술기사에서도 중국 농촌의 기독교인 수를 최소 4500만 명으로 집계<sup>7)</sup>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추산치 또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삼자(三自)교회 기독교인 수만 집계하는 중국 정부의 통계 방식이 중국 도처에 산재해 있는 가정교회(지하교회, 처소교회) 소속 기독교인 수를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래 최근 삼십년 동안 중국 기독교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기독교열’<sup>8)</sup> 현상은 이 뿐 아니라 교회 건물 증축 현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지하듯 중국 교회의 모임은 지정된 장소에 건축된 교회당(堂)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유통성이 많은 가정교회 모임인 취회점(聚會点)에서의 예배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이 중국 교회를 ‘당-점(堂-点) 모식’이라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공식 허가를 받고 등록된 교회당 건물은 모두 삼자(三自)교회

- 
- 3) 将志敏、徐祖根, 〈面对十字架的思考--中国基督教热透视〉, 《瞭望周刊》, 1989년 1월, 31일자, 6쪽.
  - 4) 赵志恩, 〈中国基督教的过去、现在以及展望二十一世纪〉, 《金陵神学志》, 2001년 第3期, 12쪽.
  - 5) 陶飞亚, 〈中国基督教史研究的新趋向〉, 《史林》, 2013년 第2期, 106쪽.
  - 6) 吴理财、张良, 〈农民的精神信仰: 缺失抑或转化--对基督教盛行的反思〉, 《人文杂志》, 2010년 第2期, 175쪽.
  - 7) Sarah Schafer, 〈역경을 헤쳐나가는 중국기독교 전사들〉, 《뉴스위크(한국판)》, 제14권, 제19호, 2004년 5월, 12일자, 24쪽.
  - 8) ‘기독교열’이란 용어를 사용한 비교적 초기의 문장은 将志敏、徐祖根의 〈面对十字架的思考--中国基督教热透视〉(《瞭望周刊》, 1989년, 1월, 31일자)이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종교 활동이 자유로워진 이후 상해 장로회 소속 교회 목인 당에서 처음 드린 예배는 천명 수용 공간에 오천명이 운집할 정도였다고 전하는 저자는 80년대 전반적인 기독교 부흥 현상을 다루고 있다.

소속이며 가정교회들 중에는 삼자교회에 관리경비를 상납하고 일정부분 삼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연계되어 있는 곳과 또한 삼자교회와 아무 연계 없이 삼자회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곳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9)</sup> 그런데 1980년대 이래 공식 인가된 교회당 건물이 1,600여 곳에 이르고, 공식 집계된 가정교회(지하교회, 처소교회) 모임 장소(聚會點)도 32,000여 처에 이르는데 이 중 새로 지은 교회당과 새로 증가한 취회점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므로 이를 평균해 보면 매일 6개의 새로운 ‘당(堂)’ 혹은 ‘점(點)’이 생겨 나는 셈이다. 중국 기독교의 고속 성장세를 확연히 입증해 준다 하겠다.<sup>10)</sup>

중국 기독교의 발전은 이 뿐 아니라 신학원 건립과 관련 분야 연구 기관의 증설에서도 확인된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때까지 중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금릉협화신학원(金陵協化神學院)까지 해체됨으로 전국에 신학교가 전무(全無)한 상황이었으나 1980년 이후 꾸준히 신학교가 건립되어 현재 총 18개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4,000여 명의 신학원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외에도 전국 성, 시급 양성반이 4곳에서 이미 총 51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았다.<sup>11)</sup> 또한 기독교 연구에 신학원, 기독교 관련 연구기관 뿐 아니라 일단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꾸준히 개설하여 연구 인력이 증원되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기독교 관련 연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중국 기독교와 역사, 철학, 윤리, 문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예술, 건축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며 서방 기독교 관련 저서들의 번역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로 개혁개

9) 吴理财、张良의 연구 〈农民的精神信仰:缺矢抑或转化--对基督教盛行的反思〉(《人文杂志》, 2010年, 第2期)에 의하면 농촌 가정교회인 宏村교회는 2011년 800위안 정도의 비용을 현(縣) 삼자교회에 관리비용으로 상납한다. 삼자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 매년 교사(敎士)를 파견 순회설교를 시킨다. 한편 宏村교회가 여타 가정교회의 특별 행사 등에 사용하는 부조 비용은 200위안에서 250위안이다.

10) 赵志恩, 같은 논문, 12쪽.

11) 상동.

방 30년이래 대륙의 중국기독교사(史) 관련 출판 저작만 보더라도 저서가 300권에 달한다.<sup>12)</sup>

따라서 중국 기독교 연구 현황을 고찰하고자 할 때 기존의 이 방대한 모든 관련 연구를 대상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서 자료의 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형국이 초래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연구 성과들을 분석했을 때 1980년 이래 최근 30년간 중국 기독교 관련 연구의 궤적을 초보적으로나마 귀납할 수 있었는데, 바로 1980년대의 기독교 역사 연구의 흐름, 1990년대 신학사상 건설 운동의 흐름, 2000년대 이후로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전파 연구의 경향 등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 틀을 정론(定論)화하기에는 아직 논증의 엄밀함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 중 관련 분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기독교 연구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려는 시도가 없는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는 바는 전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상태라 하더라도 분명 일정의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동시에 가능한 여러 시사점을 제기하여 후속 연구의 시발이 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중화인민공화국 기독교 현황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에 앞서 1980년 개혁개방 시기 이전 중국 기독교의 상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자. 중국에서 기독교 연구를 서양학문 분야에 따른 현대적 인문사회과학영역의 한 분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로 볼 수 있다.<sup>13)</sup> 비록 중국학자들에 의한 중국 기독교 연구가 명말

12) 陶飞亚、杨卫华, 〈改革开放以来的中国基督教史研究〉, 《史学月刊》, 2010年第10期, 6쪽.

13) 曹中建이 편집한 저서 《中国宗教研究年鉴:1996》(社会科学出版社, 北京, 1998年版)에 묶여있는 卓新平의 연구 〈基督教研究概说〉 279쪽을 참조.

청초 즈음부터 시작되었다<sup>14)</sup>고는 하나 1949년 이전까지 중국에서의 기독교 관련 연구는 서방 선교사들이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때 까지도 중국 교회는 서방에 선교 본거지를 두고 있는 130여개 교단에 소속된 지회의 성격으로 존재하여서 ‘중국 교회’라는 영어 명칭조차 섣뜻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15)</sup> 이는 또한 명말청초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까지의 중국 기독교 관련 자료 대부분이 지금도 서방 여러 나라의 도서관, 박물관, 정부기관, 문서보관소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실에서도 입증된다.<sup>16)</sup>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1949년에서 1951년까지 서방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되었고 당시 70만으로 통계된 중국 기독교인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초 기독교 지도인사들은 사회주의 국가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토론을 펼쳤고,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제국주의의 잔재를 제거한다는 삼자(삼자) 이른바 자치(自治), 자강(自強), 자전(自傳)의 정신과 애국정신을 근간으로 삼은 <선언(宣言)>을 선포하였다.<sup>17)</sup> 또한 연이어 이 <선언>에 동참하는 기독교

14) 상동.

15) 1907년 선교사들이 상하이에서 선교백주년 대회 거행시 중국교회(Chinese Church)란 명칭의 사용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과 중국에서의 교회(Churches in China) 라는 표현만이 가능했던 것을 보아도 중국이 외국교회들의 선교구이자 서방 교회의 지교회적 위치였을 뿐 주체적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1952년 영국선교사 배대위(David M. Paton)은 중국 선교 운동의 실패가 바로 중국 교회의 중국인 지도자가 없었고 중국인 신학자가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이 진공상태를 변증유물주의가 채우게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장쓰강의 연구 <중국학계의 기독교 연구>(《神學과世界》 통권 제50호, 2004년 여름호, 270쪽.)에서 인용하고 있는 徐如雷의 글 <中国基督教的神学研究> 재인용.

16) 이 시기 1차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방 선교사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고한 내용을 주로 한다. 이러한 자료 소장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도 중국학자들의 이 기간에 대한 연구는 서방의 그것보다 많이 뒤처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严锡禹의 글 <浅谈中国基督教史的研究及史源问题>(《金陵神学志》, 2004년 第1期) 참조.

17) 姚力, <我国改革开放以来基督教发展的原因探析>, 《当代中国史研究》, 2004년 5월, 72쪽.

계 지도인사들의 서명이 공개 발표됨으로 공산당의 영도를 인정하는 중국 기독교의 공식적 입장이 명확해졌다. 지하로 숨어든 중국 가정교회의 시발이 이미 이시기부터였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의 중국 기독교 연구 또한 삼자에국운동의 기치 하에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에 입각한 종교 연구를 하게 되었고, 1952년 대학 편제 작업의 일환으로 교회대학은 모두 국가에 헌납되었으며 종교학과는 폐지되었고 철학과도 북경대학에만 존치토록 하였다.<sup>18)</sup>

그래도 1956년까지는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가능하였으나 1957년 반우파투쟁 당시 기독교인들은 모두 우파분자로 낙인찍혀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1958년에는 미신활동으로 간주되면서 절강(浙江) 온주(温州)지역과 산서(山西) 홍호(洪霍)지역을 전국 기독교의 남북 거점으로 삼아 대대적인 핍박을 가함으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었다. 1963년과 1964년에 접어들며 실제적인 계급투쟁이 진행되었고,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더 강력한 핍박과 폭력이 가해져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인은 사실상 모두 소멸되었다. 1956년 사회과학원에 설립된 종교연구소가 문혁 기간 동안 종교소멸전투대로 개칭 활동한 사례만 보아도 물리적 폭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sup>19)</sup> 전국의 신학교 상황 역시 이를 입증하는데 1917년 당시 64개소 였던 중국의 신학교는 1949년 48개였지만 1952년 화동지역 12개를 금릉협화신학원으로 통합시키고 1953년 화북지역 11개 신학교를 연경협화신학원(燕京協和神學院)으로 통합시킨 이후 1961년 금릉과 연경이 다시 금릉협화신학원으로 합쳐지며 1966년에는 급기야 전국에 하나 남았던 신학교인 금릉협화신학원이 해체되었던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드러난 중국 가정교회(지하교회)의 정체는 바로 반우파투쟁부터 시작되어 문혁시기 최고조에 달했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에 지하

18) 陈村富,〈“文化基督徒”现象的综览与反思〉,《文化基督徒:现象与争论》, 香港, 汉语基督教文化研究所编, 1997年版 제7쪽.

19) 상동.

로 잠적한 신도들의 비공개 모임이었다. 한편 1980년 1월 1일 종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그해 10월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三自爱国运动委员会) 개최와 함께 중국기독교협회(中国基督教协会)를 구성하여 향후 이 두 개 기구인 ‘양회(兩會)’를 중심으로 중국 기독교 행정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삼자애국위원회 규정이 통과되었다. 또한 성공회측 주교 정광훈(丁光训)을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주석으로 선출하였다.<sup>20)</sup> 중공중앙은 1982년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독교 정상화를 실현시켰다.<sup>21)</sup>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래 수많은 고초를 겪은 중국 기독교는 두 가지 큰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하나는 가정교회(지하교회)의 존재이다. 가정교회는 공산당의 영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엄연히 불법 집회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소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삼자교회의 일원적 조직체계이다. 대개 개신교는 일원론적 조직을 지닌 천주교와 달리 다양한 파(派)가 존재하는데 중국 삼자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성결교 등의 여러 교단과 교파가 지난 혹한의 세월을 거치면서 관리의 편리 혹은 생존의 방법으로 단일한 연합체를 구성해 내었던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급속도로 줄어드는 교인 수를 보전하기 위해 선택한 종파간 단합은 기실 1958년 당시 이미 완성되었으나, 1980년대 초 재차 대동소이의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중국 삼자교회는 일찌감치 후종파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sup>22)</sup>

개혁개방이래 중국 기독교 조직은 더욱 정비되며 행정기구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삼자 애국의 기치 하에 삼호(三好)의 치호(治好), 강호(強好), 전호(傳好)의 목표로 더욱 진전된 구호를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기독교협회는 1996년에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을 통과시키면서 기존의 삼자 원

20) 이때 주교라는 호칭은 정씨가 성공회 출신이므로 명목상 호칭으로 사용할 뿐 주교제와는 무관하다

21) 1982년 발표한 정책 <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教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은 1954년 발표된 바 있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관련 조항을 회복시킨 것이다.

22) 段琦, 같은 논문, 64쪽.

칙하의 사개필수(四個必須) 조항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사개필수란 필히 독립자주를 견지, 필히 애국애교(愛國愛教)를 실행, 필히 단결 증진에 노력, 필히 삼호(三好)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한다.<sup>23)</sup> 더 나아가 1998년에는 중국 특색의 기독교 사상 및 신학의 건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학사상건설운동’에 착수하였다. 신학교 역시 회복되어 1980년대 이래 1992년까지 18개의 신학교가 새로 건립되었고 4개의 훈련센터 또한 개설되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내 자체적인 연구조직에 의한 기독교 연구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오히려 정부기관 지정 연구소나 일반 학계의 교육 연구기관에서 기독교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가 설립한 연구소로는 정광훈 주석이 소장으로 있는 1979년 남경(南京)대학에 세워진 종교연구소를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신학원을 포함해 교강사의 자질이 낮고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도서관 장서의 심각한 부족, 신학원 입학생들의 낮은 수준 등은 총체적으로 교회 내 연구 및 저술활동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속의 일반 학계에서는 대학 계통의 연구 기구들과 공산당과 정부의 이중 영도를 받고 있는 사회과학원 계통의 연구 기구들이 활발히 관련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24)</sup> 90년대 중반까지 사회과학원 상관계구들은 총 5개의 연구소를 운영, 이를 통해 연구 성과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 북경대학을 비롯하여 8개의 중점대학들이 종교학과를 설치, 학, 석, 박사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 소속 연구센터 역시 북경대, 상해대, 인민대 외 총 12개 대학에 설치, 연구 인력이 운집되어 활동 중이다.

23) 상동, 65쪽.

24) 장쯔강, <중국학계의 기독교 연구>, 《神學과世界》, 통권 제50호, 2004년, 여름호, 286쪽.

### Ⅲ. 중국 기독교 연구 현황

#### 1. 1980년대 중국기독교사(史) 연구의 시작

중국의 기독교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룬 영역이 바로 기독교사(基督教史) 연구이다. 陶飞亚는〈改革开放以来的中国基督教史研究〉<sup>25)</sup>에서 개혁개방 30년 이래 대륙의 중국 기독교사 연구 저작만 300권에 달하며 출판된 논문도 약 3000여 편이고 출판되지 않은 박사논문 또한 40권 정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장쯔강 역시〈중국학계의 기독교 연구〉에서 중국 학자들의 연구 흥미가 중국기독교사에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지난 25년 동안 발표된 논문만 천 여편에 달하고 저서, 역서, 사료모음 등도 백 여부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6)</sup> 비록 통계 수치에 차이는 있지만 중국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최근 30년간의 관심이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되는 史적 정리 및 개괄에의 의욕으로 집중 표명되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 기독교사 연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행한 일부 주요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략 세 부분으로 이시기에 대한 공통된 史적 기술 맥락을 추려낼 수 있었다. 우선 서방 열강들이 기독교를 이용하여 중국을 침략한 문제와 교안사(教案史)를 연구한 부분, 둘째 서양 기독교와 중국 문화 간의 접촉 문제를 중서문화 교류사(交流史)의 시각에서 연구한 부분, 셋째 중국내 기독교 유입 및 전파 과정에서 보여지는 현대화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통 농업 사회가 현대공업사회로 변화하는 대변혁 중 하나의 실례라고 보는 ‘현대화 모식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또한 1980년대 개혁개방 이래 최근까지의 기독교사 연구에 대한 시기별 개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후식민주의 이론의 틀로 중국 기독교 전파사를 다루거나, 역사인류학적 차원에서

25) 陶飞亚、杨卫华, 같은 논문, 5쪽.

26) 장쯔강, 같은 논문, 289쪽.

특정 지역을 연구 단위로 삼은 성과물, 혹은 선교사들의 행적을 고증하는 인물전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첫째로 1978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대체로 학술적 해빙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즉 1950년대부터 문학을 거치며 더욱 확고히 뿌리내린 기독교 연구에 대한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역사라는 대전제 및 정치 목적론적 판단, 정치화된 시각 등을 제거해 가는 노력이다. 1980년대 초 대표 연구로는 顾长声의 《传教士与近代中国》<sup>27)</sup>을 꼽을 수 있겠다. 이는 1978년에 《帝国主义利用基督教侵略中国史》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가 다시 제목을 변경하여 재출간한 것이다. 기독교 전체적 국면을 다루고 있으며 사료 소개도 상세히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사료의 선택이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0년대 중후기에 접어들어 선악 이분법적 정치판단의 간단화를 탈피하고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 제 방면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이 서학의 전파, 교육 등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 침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국면의 일부분일 뿐이었음을 주장하는 연구 성과들이 출현하였다.<sup>28)</sup> 이와 같이 1980년대 기독교사 연구는 범정치화의 제약을 제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 시기 연구의 주목을 받은 부분은 여전히 의화단 사건에 뒤따르는 여러 교안(教案)들에 대한 분석이었고, 비록 문화충돌론 등의 시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들 교안 연구는 대체로 제국주의에 대한 반침략 및 반봉건이라는 기초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서문화교류의 시각에서 중국기독교사에 접근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물론 程伟礼 등은 일찍부터 중서문화교류사적 차원에서 중국에서의 기독교 발전을 처리함으로 범정치화 편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기독교의 전파가 중국 근대사회와 오랜

27) 이 책은 최근 상해인민출판사에서 재출간한 바 있다. (顾长声, 《传教士与近代中国》, 上海人民出版社, 2012年 12月, 第4版.)

28) 1980년대 중후기 이러한 연구 성과를 거둔 학자들로 徐以骅、曹立前、史静寰、程伟礼、景钟 등을 거론할 수 있겠다.

문화 전통에 미친 영향의 복잡다단한 면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던 이러한 시도는 교회대학사(教會大學史)를 다룬 章开沅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sup>29)</sup> 이러한 시각에서의 연구는 중국에서의 기독교 발전사 연구에 문화사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의의가 있다. 주로 중국과 서양 두 문화전통의 비교, 충돌, 상호적응과 융합을 고찰하며, 문화 교류 중 이질 문화의 적응과 개조, 본토문화의 포용과 흡수를 통한 문화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물론 熊月之는 《西学东渐与晚清社会》<sup>30)</sup>에서 서방문화가 압도적 우세를 점한 상태에서 중국으로의 진전이었지 두 문화 간 대등한 교류가 아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王立新 역시 〈近代基督教在华传教史研究的主要范式述评〉<sup>31)</sup>에서 문화교류사적 시각이 적용되는 곳은 기독교가 중국에서 벌인 문화사업상의 영역으로 그 외 선교사의 비문화활동에 대하여는 해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중서문화교류사적 차원에서 중국기독교사를 다룬 연구 성과들은 1980년대 중후반 이래 1990년대 전반적으로 꾸준히 등장했을 뿐 아니라 중국 기독교사를 정리하는 또 하나의 시각인 현대화 모식을 배태하기도 하였다.

중국 기독교사 연구에 또 다른 시각을 제기한 것은 바로 현대화 모식이다. 사실 현대화연구는 문화열 논쟁이 뜨겁게 일었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신속하게 대륙 각 학과 학문분야에 광범위하게 운용되었다. 근대 중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현대화를 추구해가는 것이었다면 서양 선교사가 서방문화를 전파해 간 과정 또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동남해 연안지역은 물론이고 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까지 족적을

29) 章은 저서 《中西文化与教会大学》(湖北教育出版社, 1991年版) 서언에서 과거 중국 교회대학을 단순히 제국주의 문화가 침략하는 도구로 보았지 그것이 근대 중서문화교류의 산물이며, 그것의 발전 변화가 근대 중서문화교류사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알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30) 熊月之, 《西学东渐与晚清社会》, 上海人民出版社, 1994年出版.

31) 王立新, 〈近代基督教在华传教史研究的主要范式述评〉, 陶飞亚、梁元生编, 《东亚基督教再诠释》, 香港中文大学出版社, 2004年 114쪽 참조.

남긴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중국과 현대 세계의 첫 번째 조우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중국의 교육, 의료, 과학기술 및 정치의 현대화 변모 등 어느 영역에서나 서양 선교사의 기독교 운동이 참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우선 비교적 일찍 선교사의 교육활동과 중국교육의 현대화 간의 복잡한 관계에 주목을 해온 史靜寰의 《教会教育与中国教育的近代化》<sup>32)</sup>를 꼽을 수 있겠다. 〈基督教与十九世纪中国社会的现代化历程〉 역시 기독교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현대화라는 맥락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기독교 교육, 문화전파, 사회개량 등에 대한 근대 중국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sup>33)</sup> 王立新의 《美国传教士与晚清中国现代化》<sup>34)</sup> 역시 미국 선교사의 활동을 현대화 모식으로 고찰해 내었다.

현대화 모식으로 중국 기독교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질의 또한 당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이 근대중국의 기독교사를 미화하는 경향을 지니며 교회와 선교사의 적극적인 면만을 과도히 부각시킴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sup>35)</sup> 중국 기독교교육 논의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세속화를 향하는 현대화교육과 특정 종교이데올로기를 구비한 교회교육은 오히려 상반된 방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sup>36)</sup> 또한 근대 중국에서의 기독교를 현대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종교로서 기독교가 지니는 현대화 정신과 저촉되는 면들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제기한 주장도 있다. 기독교에게 현대화의 사명이 있거나 핵심적 가치로 여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sup>37)</sup> 이와 같이 현대화의 진전으로 중국 기독교사를

32) 史靜寰, 《教会教育与中国教育的近代化》, 广东教育出版社, 1996年版.

33) 庄维民, 〈基督教与十九世纪中国社会的现代化历程〉, 《青岛大学学报》, 1991年第1期.

34) 王立新, 《美国传教士与晚清中国现代化》, 天津人民出版社, 1997年版.

35) 何桂春, 〈也谈目前教会、教案史的研究现状---与庄维民同志商榷〉, 《福建师范大学学报》, 1992年4期.

36) 胡卫清, 《普遍主义的挑战: 近代中国基督教教育研究》, 上海人民出版社, 2000年4쪽 참조.

기술하는 시각은 여전히 적지않은 이견에 부딪힌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논의들을 거쳐 1980년대 초반까지도 짙은 음영을 드리웠던 종교아편론이란 사고체계가 종교문화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대체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2. 1990년대 ‘신학사상 건설운동’ 토론

중국 기독교사 연구가 개혁개방과 함께 시작되어 80년대에 학계의 집중적 주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연구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 90년대에 기독교 연구에 뜨거운 쟁점이 된 화두는 단연 ‘신학사상 건설운동’일 것이다. 신학사상 건설운동은 사실 중국 정부의 필요에 삼자(三自)교회가 적극 호응하여 중국 특색의 신학 사상을 이론화한 결과이자 중국 기독교계에 이를 보급 확산시킨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심각한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회주의 중국 건립 이래 수립된 중국 교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다시금 논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신학사상 건설운동은 90년대 들어서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된 ‘종교 적응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성장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 차원에서 종교와 사회주의의 상호 적응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의 종교관에 변화를 초래했는데 즉 ‘종교의 존재는 사회역사의 깊은 근원을 두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종교가 최종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존재하는 시간은 계급과 국가가 존재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 변환의 틀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하에 기독교의 눈부신 발전 상황을 해석하고자 제기한 것이 종교와 사회주의의 상호 적응 문제인 셈이다. 따라

37) 罗志田, 〈见之于行事:中国近代史研究的可能走向〉, 《历史研究》, 2002年 第1期.

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은 분명 중국 정부의 필요를 적시에 해소시켜준 역할을 감당한 면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 하의 중국에서 ‘종교는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종교활동은 사회주의 국가와 민족의 전체 이익에 복종되어야 하며 종교 교리의 해석 또한 사회진보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함’<sup>38)</sup>은 1950년대 초기부터 명시되어 온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8년 11월 23일 제남에서 개최한 전국 기독교 양회(兩會) 제4기 1차 위원회에서 〈关于加強神学思想建设的决议〉를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바로 ‘중국 기독교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사회와 더욱 깊은 차원에서 서로 적응하기 위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는 평가<sup>39)</sup>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회의를 주최한 전국 기독교 양회의 대표 정광훈(丁光訓) 주교는 이미 같은 해 9월 4일 기독교의 신학사상 건설에 대하여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sup>40)</sup>는 기본적 방향 제시를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신학사상 건설운동은 시작 전부터 이미 뚜렷한 지향점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가 90년대의 중국 사회주의 체제 내에 더욱 안정된 적응을 해나가기 위한 중국 기독교 특색의 신학적 사상 기초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신학사상 건설운동은 정광훈 주교가 주관하는 ‘신학사상 추진 소조’의 지도하에 전국 양회 조직을 통하여 1999년 ‘《정광훈 문집(丁光訓文集)》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연이어 2000년 ‘중국 기독교 성경관 학술 세미나’, 그리고 2001년 ‘중국 기독교 신학건설 사역 추진 세미나’ 등을 개최

38) 주효홍, 〈중국기독교의 신학사상 건설에 관한 일부 관찰〉, 《長神論壇》, 2008년 5월, 제31집, 154쪽.

39) 王乐山, 〈神学思想建设与基督教在中国的命运〉, 《金陵神学志》, 2004年 第2期, 10쪽.

40) 丁光训, 〈调整宗教观念的呼唤〉, 《人民政协报》, 1998年 9月 4日.

하였다. 각 지역의 지방 양회들도 연이어 각종 신학사상 세미나를 개설함으로써 운동에 참여하였다. 신학사상 건설운동에 관한 저서는 《정광훈 문집》 이외에도 《신학사상 건설을 논함(論神學思想建設)》, 《중국기독교 신학사상건설총서(中國基督教神學思想建設叢書)》 1,2집이 출판되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정기 간행물인 《천풍(天風)》과 《금릉신학지(金陵神學志)》에 신학사상 건설운동 관련 전문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와 같이 중국 기독교 삼자교회 지도자 및 전국 양회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선전활동을 진행해 왔다.<sup>41)</sup> 신학사상 건설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로 기독교의 불변적인 기본 신앙으로부터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질 수 있는 신학사상을 분리시켜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때 신학사상 건설은 성경, 교회의 역사 전통, 중국 교회의 삼자에국운동 경험, 중국 민족의 문화, 이 네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즉 삼위일체(三位一體), 도성육신(道成肉身), 그리스도의 부활 등 고정 불변한 기독교의 기본 신앙과는 별도로 각 시대, 지역, 문화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는 신학의 토착화 문제, 상황화된 신학을 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학사상 건설운동의 기본 취지가 중국 현실의 필요에 의한 조정(調整) 내지 인도(引導)이지 결코 다른 것으로의 개조나 변경이 아니라는 해명<sup>42)</sup>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적잖은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신학사상 건설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의 사고에 전제되어 있는 기독교 해외 세력(내외국인 포함)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농후하게 표출되어 종교의 정치화라는 우려 섞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의 중국 기독교사에 대한 시선에는 여전히 근대

41) 주효홍의 글 〈중국기독교의 신학사상 건설에 관한 일부 관찰〉(《長神論壇》, 2008년 5월, 제31집, 156쪽)에서 인용한 曹圣洁의 글 〈论神学思想建设的紧迫性和其内容〉(《思考和实践》, 32쪽) 재인용.

42) 丁光训, 〈神学思想调整的不可回避和必然〉, 《中国基督教神学思想建设丛书·第一》, 两会遍印, 30쪽.

기독교의 제국주의적 중국 침략과 수차례의 교안 사건, 1920년대의 반기독교운동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심지어 1990년대 이래 해외, 특히 서방의 적대 세력이 기독교를 이용해 중국의 ‘서방화’,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며, 기독교 신자의 급성장에 비해 삼자애국 정신이 투철한 교목 인원이 부족한 틈을 노려 일련의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고 정치적 침투를 도모한다 라는 식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sup>43)</sup> 무엇보다 신학사상 건설운동에 대하여 이는 1950년 ‘삼자애국운동’의 반제국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1956년 ‘군중성신학대토론(群衆性神學大討論)’을 통해 확립된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옹호의 결의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sup>44)</sup>할 때 중국 기독교 삼자회 소속 이외에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신학사상건설운동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삼자교회 체제 내에 긴밀히 결속되어 있지 않은 가정교회(지하교회, 처소교회)나 일부 해외의 중국인 기독교인들은 신학사상건설운동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때론 적대적인 태도를 표명하기도 한다. 1950년대 초 삼자애국운동의 추진과 함께 공산당의 영도를 인정한 삼자교회의 전통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중국 가정교회(지하교회, 처소교회)로서는 신학사상 건설운동이라는 것이 본질상 또 한 차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신앙개조 운동의 연속인 것이다. 일부 중국 가정교회 사이트는 정광훈 주교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학원과 삼자교회 곳곳에 자신의 문집을 읽도록 호소하는 것을 마치 문혁시기 모택동 선집을 읽는 추세에 비교하는가 하면, 일부 금릉신학원 학생의 퇴학 성명을 게재하며 정주교가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동조하고 있음을 격렬히 비판하기도 하였다.<sup>45)</sup> 신학사상건설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으로는 주효홍이 <중국 기독교의 신학사상 건설에 관한 일부 관찰>에서 중국 가정교

43) 王乐山, 같은 논문, 9쪽.

44) 상동, 14쪽.

45) 囚焱, <http://www.chinahousechurch.org/chinese2/threeself.html>, 2003년 6월 25일.

회의 언론을 반영하는 잡지로 알려진 《생명계간(生命季刊)》에 이신원(李信源)이라는 이름으로 연속 게재된 〈한 불신파의 표본(一个不信派的标本)〉이라는 글을 정리한 것이 비교적 참고할 만하다.

주효홍은 이신원의 주장을 크게 신론(神論), 그리스도론, 인간론과 구원론, 점진적 계시론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이를 다시 요약 정리해 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신론에 있어서는 신학사상 건설운동 측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신(神)의 한 속성만 강조함으로 그 외의 공의(公義), 거룩, 참됨 등의 속성이 무시되고 있는 면을 지적하였다. 공의를 전제하지 않는 사랑은 단지 정서일 뿐, 성경에 계시된 신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sup>46)</sup> 그리스도론에 대하여는 정광훈 주교의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실은 “보편 구원론”을 위한 비성경적 도약이라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정 주교의 ‘그리스도의 우주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구원을 보편화시키려는 의도이자 공산주의의 합법성을 위한 신학적 해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다.<sup>47)</sup> 인간론과 구원론에 있어서도 정 주교는 “모택동, 등소평, 주은래, 뤼봉같이 도덕이 고상한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신칭의(因信稱義)의 교리를 약화시켜 기독교의 대중화를 피하자고 주장한다.<sup>48)</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도덕과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원죄성, 죄의 보편성에 근거한 기독교의 인간론 및 구원론과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 주교의 ‘점진적 계시론’ 역시 성경의 신성성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결국 신학사상 건설운동은 이를 추진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기독교의 기

46) 李信源, 〈一个不信派的标本 评丁光训文集(一)〉, 《生命季刊》总第14期.

47) 李信源, 〈一个不信派的标本 评丁光训文集(三)〉, 《生命季刊》总第16期.

48) 丁光训, 〈神学和环境〉, 《中国基督教神学思想建设丛书·第一》两会遍印, 197쪽.

본신양과는 별도로 기독교의 토착화와 관련된 상황화 신학 문제를 논하는 것이라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은 이것이 정부의 정치 노선을 따르기 위하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본 교리조차 변경시키고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상호간 접합점이 아예 보이지 않는 극단적 대립 국면을 조성해 가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3. 2000년대 이래 기독교 현지 조사 연구

중국 기독교 연구는 80년대 중국기독교사 연구로 시작되어 90년대 신철학연구, 신학서적 역서 출간 붐, 신학사상 건설운동의 흐름을 거쳐 2000년대로 들어서며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내 기독교 전파사 연구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삼십년간 초고속 성장세를 보인 중국 기독교에 대해 많은 중국학자들은 기독교가 확산된 원인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관련 연구들이 대거 출현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기독교가 처한 외부 환경 문제이다. 1949년 신중국 건립 이전과 그 이후로 중국 기독교가 처한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1949년 이전 중국 기독교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부속사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서방 선교사들은 기독교 전파에 있어 교육, 의료, 출판, 인쇄, 사회 복지 시설(고아원 등), 자선사업 등 외부적 환경 조건 개선을 병행하며 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기의 중국 기독교 전파에 관한 연구는 당연히 이러한 외부적 환경이 선교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국 건립 이후 모든 교회 소속 대학 및 병원, 출판 기구와 복지 시설 일체가 국유화로 되었기 때문에 중국 기독교는 말 그대로 나체 종교화 되어 순전히 복음에만 의지한 전파 활동을 해나가게 되었다.<sup>49)</sup> 이는 1980년 개혁개방 이래의 기

49) 중국 농촌 교회 대부분이 바로 이런 복음의 핵심만을 견지하는 ‘기요파(基要派)’인 것도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段琦의 같은 논문, 63쪽 참조.)

독교 전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아가 외국인 선교사의 포교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자국인들 간의 전도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러한 통제력은 당연히 기독교 전파를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이래 중국 기독교의 성장세가 그 이전 어느 시기와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30년 이래 중국 기독교 전파사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그 폭발적 성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분포 비율이 가장 높은 두 집단인 중국 농촌 사회와 도시 대학생 집단에 대한 현지 조사 식의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1) 중국 농촌 기독교 전파 연구

중국인들은 흔히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부 종파가 당나라, 원나라, 명말 청초, 아편전쟁 전후 시기 등 4차례 집중적으로 중국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모두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유교, 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과 이 민간신앙을 근간으로 중국적 동화를 완료한 불교가 거대한 중국 농촌 사회를 지켜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혁개방 30년 이래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바로 1950년대 이래 급진적으로 시행된 사회주의 혁명 운동에 의해 이러한 민간신앙이 모두 괴멸되어 신앙의 진공 상태로 1980년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50)</sup> 이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출현과 함께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변화는 기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급속도로 제거시켜 갔고, 1980년대 중반 이래 농촌 사회의 가치관 혼돈 상태는 배금주의, 향락주의,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풍토로 이어졌다. 이데올로기적 신념의 부재와 도덕적 아노미 상태가 겹쳐지면서 농촌 사회는 정신적 지주이자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신앙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1)</sup>

50) 吴理财、张良, 〈缺失抑或转化—对农村基督教文化盛行的反思?〉, 《人文杂志》第2期, 2010年 177쪽.

혹자는 이를 한층 더 이론화하여 설명하길 사회 현실에 대하여 기존의 사고체계가 더 이상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새로운 종교(사상)를 수용하게 된다<sup>52)</sup>라고 함으로 예민한 사회 비판 의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중국 농촌사회가 새로운 신앙의 대상으로 굳이 기독교의 복음만을 선택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즉 문혁(文革)이 종결되고 열린 80년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시와 함께 시작되었으므로 신앙 활동이 재개된 종교는 비단 기독교 뿐 아니라 혁명시기 극좌 노선의 오류로 괴멸되었던 일체의 중국 전통적 민간신앙과 종교 등이 모두 함께 부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가 중국 농촌 사회에서 개혁개방 30년이래 최고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중국 농촌의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기도 한다. 농촌에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기능이 약화되면서 기독교가 농민들에게 그 필요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3)</sup> 1990년대 이래 도시와 농촌 간의 커져가는 빈부 격차와 삼농문제는 더더욱 농촌의 사회적 시스템 부재 현황을 부각시키며 당과 정부의 농민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켰다. 더구나 2006년 정부가 농업세를 폐지한 이래 비록 정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였지만 각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기존의 착취 정부에서 서비스형 정부로의 변환을 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농민과 정부 간의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 버리게 되는 결국이 초래된 것이다. <sup>54)</sup> 이에 반해 중국의 농촌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던 1980

51) 상동, 177쪽, 179쪽.

52) 孙尚扬, 《宗教社会学》, 北京大学出版社, 2003年版 107~108쪽.

53) 杨倩倩、陈岱云, 〈农民社会支持网络的演变与农村宗教热现象研究〉, 《东岳论丛》第3期, 2011年 101쪽, 104쪽.

54) 吴理财、张良, 같은 논문, 180쪽. 이 외에도 建嵘은 〈基督教的发展与中国社会稳定--与两位基督教家庭教会培训师的对话〉(《领导者》, 2008年, 4月号)에서 농촌 행정 말단인 촌 간부들의 기독교화 및 농촌교회가 촌위원회를 대체하는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해당 지역에서의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교회 자체가 지니는 공동체적 부름에 대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신앙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기독교 전파 원인을 분석하려는 관련 논문들은 종종 농촌 사회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의 상부상조와 선행을 집중 분석하여 거기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하남당하현(河南唐河县)의 한 가난한 부녀가 남편 상을 당하여 촌(村), 향(乡) 간부를 찾았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지역 가정교회(지하교회, 처소교회) 신도들이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는 식의 농촌 교회 미담들에 주목하는 것이다.<sup>55)</sup> 농촌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앞장서서 마을의 길이나 댐을 보수하고, 농아 학교 등을 함께 건립해 가며, 때론 정부에 상납해야 할 곡물 산출을 위해 공동 노동을 독려함으로 해당 마을 촌 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시설이나 환경이 도시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현실에서 농촌 청년들이 교회 모임의 참석을 통해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 또한 농촌 교회 부흥의 원인으로 주목된다.

1980년대 농촌 교회 부흥의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이 외에도 농촌 기독교 인구의 삼다(三多) 현상 즉 부녀자가 많고, 노인이 많고, 문맹자가 많은 현상을 들어 문화적 수준이 낮은 신도들이 대부분임으로 공리심(功利心) 만족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구제금 수령이나 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사실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다수의 관련 연구에서 항목으로 처리되는 것만 보아도 분명 농촌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sup>56)</sup> 이렇게 볼 때 중국 농촌 교회는 비록 49년 이전 구비했었던 병원, 대학, 사회 복지 시설 등 그 어떠한 풍족했던

55) 将志敏、徐祖根, 같은 논문, 8쪽.

56) 상동. 저자는 河南, 安徽, 浙江 등 농촌지역 백여명의 기독교 신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가 넘는 수의 신도가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독교를 믿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외부 환경적 조건들도 모두 제거된 채 복음만을 지닌 상태였지만 농촌 교회 자체적으로 상부상조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소통과 교류에 힘을 쏟았고 이러한 노력은 바로 중국 농촌의 허물어져버린 사회적 시스템을 대신하게 되는 성과를 얻어 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농촌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더욱 근원적인 영역에 대한 필요를 분석하게 하였다. 최근 하남성 14개 촌의 농촌 가정교회 170명의 기독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난 삼십년간의 신앙 궤적을 설문조사한 논문 〈传播模式与农村基督教群体特征的演变〉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외 전도’가 주된 기독교 전파의 방식이었던 1980년대에는 병 고침과 건강을 위해서 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가족 내 전도’의 비율이 높아진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로는 병 고침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sup>57)</sup>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가족 외 전도’ 보다 전도자의 삶이 모두 공개되는 ‘가족 내 전도’는 성품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요인들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sup>58)</sup> 또한 이러한 ‘가족 내 전도’를 통한 교회의 성장은 중국 농촌 교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독교인 아내를 통해 남편들이 전도되면서 교회 구성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고되었고, 또 자녀들이 전도되면서 교회 내 젊은 층의 비율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성도들의 비율이 모두 향상되면서 기존의 농촌 교회 삼다(三多) 현상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sup>59)</sup>

57) 韩恒, 〈传播模式与农村基督教群体特征的演变—基于河南省14个调查点的分析〉, 《世界宗教文化》第5期, 2012年 90쪽.

58) 黄剑波는 《‘四一堂’—中国乡村基督教的人类学研究》(北京, 中央民族大学, 2003年, 博士学位论文, 69~70쪽)에서 甘肃天水지역 현지조사 실례를 인용하고 있다. 36세의 농민 吴齐가 기독교인이던 아내를 핍박하였는데 자신이 병이 난후 도망가지 않고 간호해주는 아내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여지게 된 이후 아들에게도 기독교인 며느리를 얻게 하겠다는 설문 내용이다.

59) 韩恒은 같은 논문, 98쪽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가정 내 전파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 신도의 비율이 높아졌고 31세에서 60세의 중년층 인구

관련 연구 중 비교적 광범위한 표본 조사를 진행한 연구인〈农民的精神信仰: 缺失抑或转化?—对农村基督教文化盛行的反思〉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규명을 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무한시(武汉) X구(区) 중공 당위원회 당교(党效)의 요청에 의해 2009년 해당지역 281개 촌(村)의 촌서기(村书记)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 연구는 목전 중국 농촌의 기독교 현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표본조사인 것이다. 설문조사의 첫 번째 문항은 각 촌서기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지역 내에 촌민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54.2%가 ‘기독교 예수’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불교’(17.2%), ‘도교’(3.4%), ‘이슬람교’(1.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당 지역 촌민들이 기독교를 믿는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기독교 교리 신봉, 정신적 공허함과 결핍, 정신적 의지할 곳 추구’라는 대답이 48.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문화생활 결핍, 소통 공간의 필요’ 때문이라는 대답은 18.9%, ‘상부상조하는 교인의 생활이 좋아서’는 16.1%가 선택했으며, ‘병 고침을 얻고 건강을 위해서’는 15.3%에 그쳤고, ‘교회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5.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sup>60)</sup>

이렇게 볼 때 개혁개방 30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중국 농촌 교회의 급성장 원인으로 외부의 환경적 요인보다는 인간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필요가 더욱 근본적이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물론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 소통과 교류의 필요, 물질적 삶의 필요(병 고침, 구제)를 채우기 위해 기독교인이 된 경우도 언급되어야 하겠지만 최근의 중국 농촌 교회는 벌써 신도들의 신앙적 헌신이 오히려 자발적일 정도로 성장하였다. 苏北지역 향수현(响水县) 홍촌(宏村)에서 본래 촌의 합작사로 제공되었던 건물에 교회가 들어서 사용하다가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위험하여 새롭게 교회를

비율이 63.5%로 더 이상 老人多의 현상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신도의 비율이 71%에 달해 文盲多의 현상 또한 바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60) 吴理财、张良, 같은 논문, 176쪽.

건축한 실례를 현지조사한 논문〈基督教体系在中国乡村的认同世界建构—以宏村为个案〉은 해당지역 촌민 교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교회 건축을 위해 기꺼이 헌납하는 열정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농촌교회의 열정이 민공 신분으로 도시로 떠났던 한 교인을 통해 도시 교회에 전달되면서 감동을 일으켜 도시교회로부터 건축 비용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과정이 실려 있다. 이 연구는 홍촌(宏村) 교회 농촌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건축에 헌신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결론은 기독교 신앙이 이들 농민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내재화되어 신에 대한 신앙심에 기반하여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한 헌신을 기꺼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1)</sup>

## 2) 도시 대학생 기독교 전파 연구

도시에서의 기독교 전파에 대한 연구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연구 중에는 도시 교회 교인들 중 타지역 이주민들의 분포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농촌 교회 기독교인이 도시로 이주한 이후 같은 계층인 농민공 집단을 대거 전도하는 실례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sup>62)</sup>, 또 다른 한편으론 최근 도시 교회의 새로운 현상인 ‘신삼다(新三多)’ 현상, 즉 도시 교회에 청년이 많고, 문화 수준이 높은 자들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많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소위 경제적으로 성공한 계층에 대한 기독교 전파에 관심을 호소하는 시각도 있다.<sup>63)</sup> 그러나 도시 기독교 전파 연구에 있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은 대학생 집단의 기독교 전파 현황이었다. 주요 도시 중점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특히 중국의 대학생들

61) 胡军, 〈基督教体系在中国乡村的认同世界建构—以宏村为个案〉, 湖北文理学院学报, 2012年, 第9期, 52~53쪽. 기독교도들의 만족감, 내면의 평정이 결코 세속적 이익에서부터 오지 않으며 정신적 신앙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은 张敏의 저서 《基督徒身份认同—浙江温州案例》(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6年版)의 주장이기도 하다.

62) 高师宁, 〈城市化过程与中国基督教〉, 《宗教学研究》 第2期, 2011年 120쪽.

63) 段琦, 같은 논문, 67쪽.

은 어려서부터 무신론과 유물주의 이론을 학습해왔고 심지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대학 생활 중에서도 여전히 무신론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더욱 의아함을 자아낸다.

2002년 중국인민대학 기독교문화연구소는 중국 인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중국 대학생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当代中国大学生对基督教信仰的理解特征)”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인 인민대학 본과생 6,184명 중 기독교를 믿는다고 명확하게 답한 대학생이 약 3.6%였으며, “기독교를 믿진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라는 대답을 한 학생이 약 61.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sup>64)</sup> 또한 2006년 중국 무신론협회이사이자 북경과기대학(北京科技大学) 교수인 좌봉(左鹏)이 주최한 “북경시기독교현상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 중 종교적 믿음을 지니고 있는 비율이 약 3%에서 20% 에까지 이르고, 1998년의 북경대학생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를 믿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또한 북경시 대학생 기독교인 중 자주 가정교회(지하교회, 처소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은 57.3%에 이른다.<sup>65)</sup> 2008년 초 상해지구 6개 중점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얻은 수치 또한 대학생 중 기독교를 믿는 비율이 4.7%에 달했다. 반면 상해시 민족종교위원회에서 2005년 공표한 상해시 기독교도의 비율은 1.07%로 나타나 있어<sup>66)</sup> 일반 도시민보다 대학생 집단 내에 기독교인 분포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중국의 도시 인구 중 특히 대학생 집단에서 흥왕하고 있는 것일까. 좌봉의 표본 조사에 의하면 중국 대학생 기독교인 82명 중 63.4%의 대학생이 대학에 들어 온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sup>67)</sup> 대학생들이 최초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 통로에 대한 연구를

64) 谢明, 〈当代大学生基督教传播现状调查——以北京市某高校大学生团契为例〉, 《民族教育研究》第6期, 2010年 70쪽.

65) 상동.

66) 华桦, 〈大学生信仰基督教状况调查——以上海部分高校大学生为例〉, 《青年研究》第1期, 2008年 25쪽.

67) 左鹏, 〈象牙塔中的基督徒——北京市大学生基督教信仰状况调查〉, 《青年研究》

보면 우선 친구, 학우들을 통해서가 5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가정의 영향이 20%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sup>68)</sup> 대학생 집단에서 확인된 이러한 전파 경로는 위에서 살펴 본 바 농촌 교회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농촌 교회에서도 1980년대에는 친척이나 주변 이웃, 지인들을 통해 1990년대에는 가족을 통해 전파되는 경로가 조사된 바 있다. 다만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비율이 11%에 달하는 점은 대학생 집단의 특징을 대언한다고 볼 수 있다.<sup>69)</sup>

한편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분석한 관련 연구들은 대학생 집단의 특징을 더 명확히 보여준다. 200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된 동기를 묻는 설문에서 가족의 영향력, 즉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진리와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라는 동기가 33.3%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sup>70)</sup> 또 다른 2010년의 연구가 진행한 60명의 대학생 기독교인 표본 조사에 의하면 그 중 29명이 서방문화, 예술, 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20명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기독교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답했고, 그중 4명은 삶이 궁허하고 정신적 지주가 필요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경우는 60명 중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3명은 모두 대학에 들어온 이후 기독교와 접촉하게 된 경우였다.<sup>71)</sup>

대학생들의 신앙 동기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이들의 필요가 지적 탐구, 정신적 가치에 대한 추구, 삶에 대한 고뇌 등과 같은 근원적 문

5期, 2004年 12쪽.

68) 华桦, 같은 논문, 28쪽.

69) 상동.

70) 肖小霞、刘怡娃, 〈大学生基督教信仰的动机和影响〉, 《河北青年管理干部学院学报》第2期, 2008年 45쪽.

71) 谢明, 《当代中国基督教传播方式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院, 博士学位论文, 2010年 87쪽.

제와 연계되어 있어 병고침을 위해, 혹은 상부상조의 도움을 얻거나 교회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등과 같은 농촌 기독교인의 신앙 동기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기독교인 대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보면 이들의 이러한 정신적 가치 추구의 열망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관련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가정 경제 상황이 평균에 달한다고 답한 비율이 52.9%이고 부유하다고 답한 비율 또한 23.4%에 달했으며 반면 자신의 가정이 가난하다고 답한 비율은 0%였다. 또한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화목한 가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70.6%에 달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도 보통 내지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94.1%에 해당되어 대학생 기독교인 집단은 결코 대학생 집단 내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약자(弱者)에 속하는 그룹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72)</sup> 즉 이들은 물질적 필요나 생활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정신적 필요에 의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있음이 분명히 입증된 것이다.

대학생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대한 추구는 고스란히 이들의 신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의미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6.5%의 대학생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했고, 70.6%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복을 얻기 위해”, “영혼이 천당에 들어가기 위해” 라는 항목을 선택한 경우는 0%였다.<sup>73)</sup> 이와 같이 대학생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게 된 근본적 동기가 바로 기독교인이 된 그들의 삶의 태도, 목적 등 근본적인 영역에서 인식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72) 华桦는 같은 논문, 28쪽에서 대학생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정 관계가 화목하다 70.6%, 보통이다 29.4%, 화목하지 못하다 0%였다. 이들의 가정 경제에 대한 설문 결과로는 매우 부유하다 5.9%, 부유하다 23.4%, 중상정도이다 17.6%, 보통이다 52.9%, 가난하다 0%였다. 건강상황에 대한 설문에서도 건강하다 70.6%, 보통이다 23.5%, 병약하다 5.9%였다.

73) 华桦, 같은 논문, 28쪽.

또한 대학생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변화는 이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현장에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일반 비기독교인 학생들보다 더욱 엄격한 규범과 도덕적 기준을 자신에게 제정하게 된다는 점이다.<sup>74)</sup> 예를 들어 이들 대학생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愛人如己)”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신(神)의 자신을 향한 권고와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sup>75)</sup> 이들은 내면적으로 기독교 교의를 체화해 나가면서 인생관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데 대체로 이전보다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변하며 주변에 선을 베풀고자 한다고 관찰하고 있다.<sup>76)</sup> 또한 이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과정 중에 어떤 특별한 “신의 기적”에 의해 감동되기도 하나 이러한 초월적인 경험이 대학생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주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sup>77)</sup> 그 보다 기독교 교의가 전하는 풍부한 정신적 자원에 더 집중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서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온 것으로, 기독교도가 된 후에 이들 중의 대다수는 모두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업과 삶을 대면하게 되었고, 더욱 높은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어떤 문제나 곤경에 부딪혔을 때에도 기독교는 이들에게 정신적 힘을 주고 정서적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sup>78)</sup>

이와 같이 북경 한 중점 대학교 학생들 60여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부 미등록 가정교회(지하교회, 처소교회)인 포도원교회를 6개월간 구도자의 신분으로 모든 예배와 모임, 성경공부반에 참석하여 관찰한 결과와 설문 내용을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 박사논문 《当代中国基督教传播方式研究》에 의하면 이들 대학생 기독교 집단의 급속한 전파에는

74) 谢明, 《当代中国基督教传播方式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院, 2010年, 博士学位论文, 89쪽.

75) 상동.

76) 상동, 89~90쪽.

77) 상동.

78) 상동.

기독교 학생들 사이에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한 활발한 소통과 감정교류 또한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sup>79)</sup> 고정된 장소에서 예배로 모임을 하는 것 이외에도 식사나 야유회, 여러 오락활동 등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식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모함으로써, 신앙 학습 이외에도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생활 문제 등이 교류를 통해 객관화되는 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는 더욱 더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며 개별화, 고립화되는 중국 대학생 집단의 추세를 볼 때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한다.

#### IV. 나가며

최근 30년간의 중국 기독교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기독교의 급성장과 함께 “기독교열”이라 불리울 만큼 활발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처음 시작된 관련 연구는 기독교사 연구이다. 제국주의 침략사라는 대전제 하에 기독교 교안(教案)사 위주로 연구되던 흐름은 점차 이분법적인 정치화된 시각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중국과 서양의 문화교류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같이 문화교류의 접촉점으로 기독교의 전파사를 바라보면서 1990년대 이래 현대화 모식으로 중국 기독교사를 재해석하려는 새로운 연구 동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현대화 모식은 물론 적잖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기독교대학사(基督教大學史) 연구 등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한 영역에서 일정정도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국 기독교 연구에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는 ‘신학 사상 건설운동’ 이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기독교 인구수와 교회 세력에 대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 중국 정부는 모종의 통제력을 확인하고 싶었음에 틀림없고, 이는 중국 삼자교회

79) 상동, 90~91쪽.

조직을 대표하는 기독교 양회의 영도자 정광훈 성공회 주교에 의해 신학 사상 건설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정리, 발표, 전파되었다. 요지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중국 기독교가 이와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영역이 아닌 외부 환경에 의해 재해석이 가능한 신학의 부분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되는 것을 적극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면은 약화시킨다는 원칙하에 중국 특색의 기독교 신학을 건립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지하교회 및 해외 중국인 교회로부터 기독교의 근본 신앙관 자체를 변경시킨 위협한 이론이자 중국 공산당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기독교 연구는 개혁개방 이래 지속되고 있는 기독교 확산 문제를 대면하여 기독교 전파원인 분석에 대한 현지 조사를 동반한 연구가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며 진행된다. 대체로 기독교 인구 분포가 높은 농촌 지역의 농민 집단과 도시의 대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독교를 믿게 되는 원인 분석에 있어 농민 집단에 대하여는 교인 중 부녀자, 문맹자, 노인이 많은 이유를 들어 병 고침을 받거나 교회의 구제금을 위해, 혹은 상부상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최근 관련 연구들은 오히려 정신적 공허감, 정신적 지주의 필요 등과 같은 근원적 원인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시 대학생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가치의 추구 등과 같은 대답이 기독교인이 된 가장 많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 주로 학우나 지인 혹은 관련도서를 통해 기독교를 접한 이들은 기독교인이 된 이후 기독교의 교의가 이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 30여 년 간 중국 기독교 연구 현황을 일별하였다. 물론 이 외의 영역, 예를 들자면 기독교 신철학 연구 분야 혹은 기독교 학술서적 번역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방대한 관련 자료들 가운데 가능한 주류를 이루었던 연구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였으며 지극히 초보적이거나 이상과 같은 연구 흐름의

지형도를 확인하였다.

### < 參考文獻 >

- 谢明, 《当代中国基督教传播方式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院, 2010年, 博士学位论文.
- 黄剑波, 《‘四人堂’—中国乡村基督教的人类学研究》, 中央民族大学, 博士学位论文, 2003年.
- 장쯔강, 〈중국학계의 기독교 연구〉, 《神學과世界》, 통권 제50호, 2004년, 여름호.
- 주효홍, 〈중국기독교의 신학사상 건설에 관한 일부 관찰〉, 《長神論壇》, 2008년, 5월, 제31집.
- 高师宁, 〈城市化过程与中国基督教〉, 《宗教学研究》 第2期, 2011年.
- 段琦, 〈当代中国基督教概况及所面临的问题〉, 《世界宗教研究》, 2003年, 第3期.
- 丁光训, 〈调整宗教观念的呼唤〉, 《人民政协报》, 1998年 9月 4日.
- 丁光训, 〈神学思想调整的不可避免和必然〉, 《中国基督教神学思想建设丛书·第一》, 两会遍印.
- 丁光训, 〈神学和环境〉, 《中国基督教神学思想建设丛书·第一》, 两会遍印.
- 谢明, 〈当代大学生基督教传播现状调查 —以北京市某高校大学生团契为例〉, 《民族教育研究》 第6期, 2010年.
- 肖小霞、刘怡娃, 〈大学生基督教信仰的动机和影响〉, 《河北青年管理干部学院学报》 第2期, 2008年.
- 杨倩倩、陈岱云, 〈农民社会支持网络的演变与农村宗教热现象研究〉, 《东岳论丛》 第3期, 2011年.
- 姚力, 〈我国改革开放以来基督教发展的原因探析〉, 《当代中国史研究》, 2004年, 5月.

- 吴理财、张良,〈农民的精神信仰: 缺矢抑或转化——对基督教盛行的反思〉,《人文杂志》第2期, 2010年.
- 李信源,〈一个不信派的标本 评丁光训文集(一)〉,《生命季刊》, 总第14期.
- 李信源,〈一个不信派的标本 评丁光训文集(三)〉,《生命季刊》, 总第16期.
- 严锡禹,〈浅谈中国基督教史的研究及史源问题〉,《金陵神学志》第1期, 2004年.
- 王立新,〈后殖民理论与基督教在华传教史研究〉,《史学理论研究》第1期, 2003年.
- 王乐山,〈神学思想建设与基督教在中国的命运〉,《金陵神学志》第2期, 2004年.
- 将志敏、徐祖根,〈面对十字架的思考——中国基督教热透视〉,《瞭望周刊》, 1989년, 1월, 31일.
- 建嵘,〈基督教的发展与中国社会稳定——与两位基督教家庭教会培训师的对 话〉,《领导者》4月号, 2008年.
- 赵志恩,〈中国基督教的过去、现在以及展望二十一世纪〉,《金陵神学志》第3期, 2001年.
- 庄维民,〈基督教与十九世纪中国社会的现代化历程〉,《青岛大学学报》第1 期, 1991年.
- 左鹏,〈象牙塔中的基督徒——北京市大学生基督教信仰状况调查〉,《青年研究》 5期, 2004年.
- 陶飞亚,〈中国基督教史研究的新趋向〉,《史林》第2期, 2013年.
- 陶飞亚、杨卫华,〈改革开放以来的中国基督教史研究〉,《史学月刊》第10 期, 2010年.
- 何桂春,〈也谈目前教会、教案史的研究现状——与庄维民同志商榷〉,《福建师 范大学学报》4期, 1992年.
- 韩恒,〈传播模式与农村基督教群体特征的演变——基于河南省14个调查点的分 析〉,《世界宗教文化》第5期, 2012年.
- 华桦,〈大学生信仰基督教状况调查——以上海部分高校大学生为例〉,《青年

研究》第1期, 2008年.

胡军, 〈基督教体系在中国乡村的认同世界建构—以宏村为个案〉, 湖北文理学院学报 第9期, 2012年.

Sarah Schafer, 〈역경을 헤쳐나가는 중국기독교 전사들〉, 《뉴스위크(한국판)》 제14권, 제19호, 2004년, 5월, 12일자.

因焱, <http://www.chinahousechurch.org/chinese2/threeself.html>, 2003년 6월 25일.

### < 中文提要 >

最近30年以来中国基督教研究正跟着改革开放以后中国基督教的飞速成长, 被称为"基督教热而活泼地进行。其一, 1980年代初刚开始众受重视的研究领域就是中国基督教史。以帝国主义侵略史为前提主要进行教案史研究的情况到了1980年代中期获得改善, 开始以中西文化交流史的角度来重新梳理其脉络。再后来以现代化模式来解释中国基督教史的研究出现, 成为了1990年代基督教史研究的基本思路。其二, 1990年代后期中国基督教研究的另一个主要话题就是'神学思想建设运动'。神学思想运动由中国三自教会的代表丁光训主席的指导而进行, 为提高中国基督教对中国特色的社会主义制度的适应度, 加强符合社会主义体制的内容、弱化不符合的为其基本原则, 通过基督教两会组织包括地方两会, 进行了丁主席文集的学习及研讨活动。其三, 2000年代以来中国基督教研究将其重点放在不断扩张基督教势力的现状, 开始涉及基督教传播问题有关的现场调查, 个案分析、标本调查、统计数据等社会现场调查, 成为了新的基督教研究重点。该研究倾向于关注中国农村的农民教会和城市高校的大学生团契。

Key Words : 中国基督教(Chinese Protestantism), 基督教历史(Chinese Protestantism history), 神学思想建设运动(Theology building

movement), 农村教会(Rural church), 大学生团契(University church)